우리 금석문의 예술성 · 역사성을 본다

불교중앙박물관 2018 두 번째 테마전
'금석문 탁본전-경북의 역사를 두드리다'
11월 1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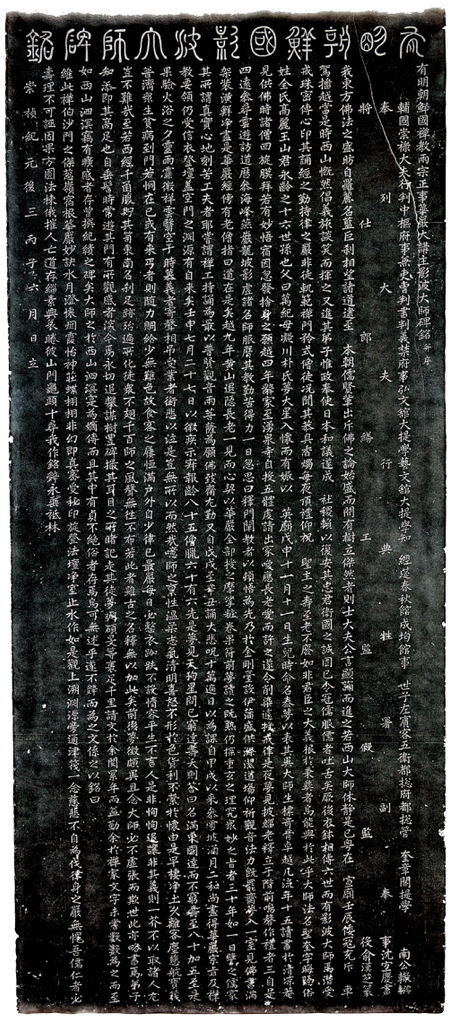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우리나라 금석문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송하)은 11월 1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2018년 두 번째 테마전으로 '금석문 탁본전-경북의 역사를 두드리다'를 개최한다.

불교중앙박물관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문화재청과 함께 진행한 '전국 금석문 조사 사업' 중 대구 · 경북지역의 금석문 200건을 정리해 마련한 이번 전시에서는 국보 2건, 보물 3건, 경북유형문화재 4건을 포함한 총 34개 비의 탁본이 전시된다.


냉수리 신라비(503 · 국보 제264호)

국보 2건 등 34개 비 탁본
서체별, 비의 형태별로 전시
"서법 연구, 교본으로 이용"
서법과 비의 역사 한 눈에


영천 은해사 영파대사비(1816)

전시는 총 2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 '서법(書法) - 선인들의 범본이 되는 글씨'에서는 '고서', '전서', '예서', '해서', '행서' 등 금석문을 서체별로 구분하여 포항 냉수리 신라비(503 · 국보 제264호), 은해사 영파대사비(1816), 호수 정세아 신도비(1760), 동강 김우옹 신도비(1723 · 경북 유형 제260호), 충신의 사단비(1793 · 경북 기념물 제133호) 등을 선보인다.

조선시대의 탁본은 서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그 교본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세종은 서법으로 삼기 위해 전국의 비를 탁본하여 바치게 할 정도로 서법 연구를 위해 탁본을 활용했다. 17세기에는 〈금석청완(金石淸玩)〉, 〈대동금석서(大東金石書)〉 등의 탁본첩이 편찬됐으며, 이러한 탁본첩에는 적게는 60여 종에서 많게는 약 300여 종의 금석문 탁본이 수록되었다. 다만 이들 탁본첩 역시 서법을 구하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비의 전체 탁본이 아닌, 서법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을 오려서 수록했다. 선인들은 비첩에 수록된 탁본들을 감상하며, 옛 글씨에 대해 토론하고 탐구했다. 이는 서법 연구와 전승에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2부 '다양한 비 - 선인들의 행적을 기리다'에서는 '탑비', '사적비', '유허비', '묘비', '신도비' 등 탁본을 비의 형태별로 선별해 선봉사 대각국사비(1132 · 보물 제251호), 불영사 사적비(1933), 명암 서학 유허비(1847), 퇴계 이황 묘갈(1905), 회재 이언적 신도비(1577 · 경북 유형 제376-1호) 등을 선보인다.

비는 선인들의 행적이나 사적을 알리고 오래도록 후세에 전하기 위해 돌, 쇠 등에 글을 새긴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비는 삼국시대부터 조성되기 시작했다. 고구려 비로는 414년 조성된 '광개토대왕릉비'와 신라의 비 '포항 냉수리 신라비', 진흥왕이 세운 4개의 순수비가 대표적이다. 삼국시대의 비는 자연석을 거의 가공하지 않고 글을 새겼다. 비의 형식에 큰 변화가 나타난 것은 661년에 조성된 '태종무열왕릉비'부터다. '태종무열왕릉비'는 귀부와 이수를 갖추고 있는데 이는 당나라의 영향이다. 이후 비의 전형적인 형식으로 자리를 잡았다.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에는 스님들의 행적을 기리는 탑비가 주를 이루었으며, 조선시대에는 능묘비가 중심이 된다. 각종 묘비와 신도비 등이 세워졌으며 용도에 따라 다양한 비들이 건립되었고 비의 형태도 다양해졌다.

불교중앙박물관은 "금석문 조사 사업을 통해 확보한 선본(善本) 탁본은 우리나라 금석문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한 중요도가 높은 탁본을 선정하여 전통방식으로 장황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금석문 서체 등의 예술성을 감상하고 다양한 종류의 비를 알아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삼국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우리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금석문의 예술성과 역사성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고 전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11월 7일(오후 2시~5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2018 금석문 조사 학술대회'도 개최된다. (02)2011-1954.

백자의 현대적 이해

박명숙 도예전
서울 인사동 'G&J 광주 전남 갤러리'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도예가 박명숙 작가가 서울 인사동 'G&J 광주 전남 갤러리'에서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개인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통 가마를 고수해오고 있는 박 작가의 지난 3년 동안의 기물 중 30여 점을 선보인다. 작가는 백자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데 관심이 크다. 이번에 전시하는 작품도 백자 유약을 전통 백자처럼 기물 안팎에 바르지 않고 기물 안에만 바른 것이 특징이다. 형태는 주로 연꽃 이미지다. 작가는 연꽃 이미지를 고수한 배경을 '작가의 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연꽃은 흙탕물 속에서, 타는 가뭄 속에서, 비바람이 몰아치는 태풍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늘 의연했습니다. 마치 시련을 극복한 인생의 아름다운 자태를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인생을 찬탄하는 찬가, 열정 같았습니다. 이번 개인전 작품들은 그런 연꽃의 일생을 여러 가지 형태로 형상화시켜 보고자 했습니다."

또, 작가는 항아리의 전(입술)은 한 개가 전통적 방식인데 발상을 전환해 이중전과 빛깔 있는 연꽃을 고수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박명숙 作, 찬가4

"3년 전 오스트리아 빈의 암파크 갤러리 초대전에서 제가 처음 시도했던 이중전(두 겹의 전)과 빛깔 고운 연꽃에 대한 현지인의 감동적인 반응에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이듬해 인사동 라메르 갤러리 개인전 때의 호평에 힘입어 확신을 갖고 꾸준히 작업했습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항아리 입술(전)을 두 겹으로 하여 연꽃 이파리의 이미지도 드러내고, 옷으로 비유하자면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는 효과를 모색했다는 것이다. 작가는 백자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형태에 있어서 고정관념을 깨게 된 동기를 〈장자〉를 수십 독(讀)하고 선(禪)수행을 체험한 결과라고 말한다.

박명숙 작가는 전남 도립대학 도예산업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도예가 지헌 김기철 선생 문하에서 6년 사사, 한국화가 외산 김기봉 선생 문하에서 4년 사사했다. 2013년 〈연꽃에 내린 달빛〉 등 4회의 개인전과 초대전 등을 열었다. 박재완 기자

"우리 문화재는 우리 곁에 있어야"


박명옥 作, 아미타삼전도

나우회 '일본 유출 문화재 재현전'
월정사서 11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불일미술관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전승작가들의 모임인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산하 나우회가 2018 나우회 전통문화의 둘레길 만들기 기획전 여덟 번째 이야기 '일본 유출 문화재 재현전'을 11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평창 월정사성보박물관에서 개최하고 이어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서울 종로구 불일미술관에서 개최한다.

'미국' 편과 '프랑스' 편에 이은 이번 전시에서는 건축, 불화, 목조각, 석조각, 종이조각 등 전승 작가 8명이 참여해 일본으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를 재현한 작품 11점을 선보인다.

지금까지 매년 '전통문화의 둘레길 만들기'라는 큰 제목으로 전시를 열어온 나우회는 해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 찾기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해외 유출 문화재를 재현해 알리고 있다. 현재 우리 문화재 중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는 약 16만 건에 이른다. 그 중에서 약 40%가 일본 유출 문화재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일본 유출 문화재 재현전'은 의미가 가볍지 않다.

출품작은 ▲김범식(경북무형문화재 제37호) 대목장이 1/10 목조모형으로 제작한 '벽제관 육각정' ▲한봉석(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9호) 목조각장이 재현한 '가릉빈가(일본 동경 박물관소장)' ▲노정용(문화재 조각기능 제1732호) 조각가의 '토우동물상' ▲박연규(문화재 조각기능 제1867호) 조각가의 '석불좌상' ▲류종상(무형문화재 불상조각장 이수자) 조각가의 '수월관음 황토탱화' ▲김형진(디자인샐러드 대표)의 '생각하는 사람(Thinker)' ▲박명옥(명화페이퍼아트 대표) 종이조각가의 '여기...살다...' ▲이연욱(경기도 무형문화재 제 57호) 불화장의 '직부사자도'이다. 모두 일본 유출 문화재이다.

한봉석 회장은 "우리 역사를 되돌아 볼 때 이번 '일본 유출 문화재 재현전'은 어느 전시보다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문화재를 우리 곁에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이번 전시가 해외 유출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불러일으키고 그로 인해 더 많은 해외 유출문화재가 환수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전시의 의미를 밝혔다. (033)339-6800

박재완 기자

九龍 의 소원...

❑ 사찰의 모든 장소 장식 가능, 분수 가능
❑ 소원당(소원지, 소원패등) 주작품
❑ 작품 소장사찰 : 여수 향일암, 강화보문사 등
❑ 크기 : 4,200(가로) × 1,000(세로) × 1,300(높이)mm
❑ 가격 : 상담 후 결정

기획불사상담문의
승원아트조형 010-9195-1044
네이버 : 승원아트조형



2018 살자 사랑하자 프로젝트 종교예식

제4회 스스로 떠난 이를 위한
위로법회

스스로 생을 마감한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남겨진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한편,
고통 속에 방황하는 현대인의 삶을 위로하는 법회

• 일 시 : 11월 10일 [토] 14:00~16:00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성림사 [마포구 성산동 65-3]
• 법 주 : 광용스님 [성림사 회주]
• 내 용 : 영가 위로 법문, 축원 기도, 등[燈] 공양 의식
• 참가대상 : 삶의 고통으로부터 치유를 경험하고 싶은 누구나
• 참 가 비 : 무료
• 접수 및 문의 : 02.737.7378
http://www.kbcd.org
※ 기도와 축원을 위해 사전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주 최 |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주 관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